



	<p>에서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여성 혐오를 가진 남성이 여성을 묻지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과 이후의 여성혐오 논란을 보면 이제 성혐오 문제가 비단 온라인 커뮤니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이후 성혐오 논란은 오프라인에서는 사그라드는 듯 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로 청년층(15~29)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성혐오 문제를 방치한다면 성혐오 정서를 접한 청년층이 성장하고, 새로운 청년층이 성혐오 정서에 노출되어 성혐오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성혐오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오프라인의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성혐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혐오 문제 완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캠페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저희의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혐오 정서를 논하기 전에, 캠페인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저희는 저희 역시(그리고 모두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성혐오 정서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저희는 저희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성혐오 정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캠페인 활동 방안 (구체적)</p>	<p>1. 사전준비: 캠페인 활동 때 들고 다닐 피켓을 준비합니다. 준비물은 발포방석, A4 용지, 테이프, 프린터, 펜 등입니다. 원래 우드락에 글자를 프린트해 붙이려 했으나, 운반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접이식 발포방석에 붙인 뒤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피켓이 적거나 프린트해 붙일 문구로는 '성혐오 반대합니다.' '성차별, 성혐오 발언은 이제 NO NO NO' 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p> <p>피켓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배지도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배지, 색종이, 배지 찍는 기계, 펜 등입니다. 배지 나눠주는 건 저희 학교의 이건호 미술 선생님께서 배지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것에서 착안했습니다. 선생님께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배지와 배지 찍는 기계를 흔쾌히 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미술시간 전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모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성혐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내용의 배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작 개수는 30개입니다.</p> <p>2. 활동 장소</p> <p>활동 장소는 광화문 광장, 명동, 서울역 등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역 10번출구로 이동합니다.(자유모듬활동과 연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자세한 것은 '이동 경로 안내'를 담당할 모듬원이 계획할 예정입니다.</p> <p>3. 활동 내용</p> <p>다섯 명 중 두 명은 피켓을 들고 서있고, 한 명은 배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배지를 나누어 주며 핫팩도 같이 나눠 줍니다. 성혐오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배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자유모듬활동을 합니다.</p>

<p>자유모듬활동 주제</p>	<p>1. 자유 모듬활동 주제(3시간): 강남역 10번출구를 가다.</p> <p>2. 주제 설정 이유: 지난해 강남역 10번출구에는 1004개의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시작 의도는 2016년 5월 17일 일어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추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글들이 많아졌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받아서'였다고 진술한 것이 성혐오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급기야 '대한민국 여성인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운이 좋아서'와 같이 극단적인 글들</p>
------------------	---

	<p>이 많아졌고,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는 주장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숨겨왔던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남성에 대한 역 혐오이다.’와 같은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모드에서 활발. 올해 8월에는 강남역 10번출구에서 여성혐오살인 공론화 시위도 있었습니다. ‘악싱숯 살인사건’을 여성혐오살인으로 공론화한다는 목적의 시위입니다.</p> <p>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성혐오 논란에서 저희는 여성혐오와 남성혐오를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여성혐오살인은 맞는지, 시위와 포스트잇의 내용은 역으로 남성혐오를 나타내지는 않는지,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가 이렇게 심각했었는지 등 성혐오 논란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남역 10번출구를 답사하고, 그곳에서 포스트잇 내용을 중심으로 성혐오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해 봄으로써 성혐오 논란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혐오와 성혐오 반대에 대한 열기를 몸으로 느끼고, 그곳에 성혐오 논란에 대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p> <p>강남역 10번출구는 성혐오 논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성혐오 논란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p>
<p>자유주제 모듬활동 계획 (구체적)</p>	<p>사전에 각자 [강남역 10번 출구 포스트잇 경향신문이 1004건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등 관련 기사, 자료를 조사해 ‘자신의 포스트잇’을 선정합니다. ‘자신의 포스트잇’의 내용과 그 글에서 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성혐오 논란,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정리합니다. 모듬활동 당일 지하철로 강남역까지 이동해 강남역 10번출구에서 나옵니다. 날씨가 추울 수 있으니 따뜻한 차림에 핫팩도 몇 개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사전에 준비한 ‘자신의 포스트잇’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캠페인에서 ‘성혐오 논란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포스트잇에 적어주세요. 핫팩을 드립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준비해 성혐오 논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이 계시다면 그 분의 의견이 적힌 포스트잇을 읽거나 함께 이야기합니다. 캠페인의 효과도 높이고, 저희의 생각도 넓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분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모듬원과 함께 다시 이야기 해봅니다. 이야기와 캠페인이 모두 끝난 뒤 ‘자신의 포스트잇’의 글과 자신의 의견을 적은 포스트잇을 강남역 10번출구에 붙입니다.</p>
<p>예산활용계획</p>	<p>[10만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지, 배지 제작 기계, 도화지: 이건호 선생님 제공</li> <li>-펜: ‘모나미 351 사인펜 12입’ 등의 사인펜 1개: 2000원±1000원=3000원</li> <li>-발포방석: ‘야외용 다용도 엠보싱 발포 방석 4단 305x400’ 등의 발포방석 3개: 3600원±1400원=5000원</li> <li>-A4용지, 프린터 등: 모듬원 것 이용</li> <li>-포스트잇: ‘카카오프렌즈 포스트잇 모양스티키, 단어장, 편선지(예쁜접착메모지)’ 등의 포스트잇 2개: 2400원±1600원=4000원</li> <li>-핫팩: 핫팩 30개: 30000원</li> <li>-기타 여유금: 10000원</li> </ul>

	총 52000원	
모듬원 역할	최낙준	캠페인 이동 경로 및 캠페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 캠페인 도구 운반
	김창윤	배지 제작(배지 찍기), 캠페인 피켓 들기, 핫팩 구매
	문지혁	배지 제작(배지 문구 적고 그리기), 캠페인 배지와 핫팩 나눠주기, 사진촬영
	이성용	피켓 제작(문구 적고 그리기), 캠페인 피켓 들기 노트북 준비
	한성주	피켓 제작(피켓판 제작과 프린트), '자신의 포스트잇'과 시민의 의견 기록, 캠페인 도구 운반

- 2 -

[붙임 2] 체험활동 공고문



통합사회 및 진로집중 체험활동 학급공고문

## ‘알면 쓸모있는 신비한 인문학’

나와 모듬이 만들어 가는 인문학 체험활동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언제? 2017년 12월 22일(금) 17:00 ~ 23일(토) (1박 2일)
- 어디로? 서울 광화문 일대
- 일정

날짜	시간	세 부 일 정	비 고
2017. 12.22.	17:00 ~	학교 출발	
	20:00 ~ 23:30	서울 도착, 자유 모듬활동, 캠페인 활동 포함	
	23:30 ~ 24:00	숙소 도착	
	24:00 ~	취침 준비 및 취침	· 서울 내 이동은 자비부담
2017. 12.23.	08:00 ~ 09:00	기상 및 아침식사	숙소식
	09:00 ~ 11:00	자유 모듬활동 나눔 및 주제 토론	모듬별 노트북 필요
	11:00 ~ 12:00	대학로 이동	
	12:00 ~ 13:30	중식	
	13:50 ~ 16:00	공연관람	
	17:00 ~	전주출발(저녁식사 일정 포함)	석식: 휴게소 식당이용

4. 참가비: 없음

5. 신청 방법

가. 신청서를 작성한다.(홈페이지, 사회과 담당선생님, 담임선생님에게 있음)

나. 12월 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김지훈 선생님께 제출한다.

신청서 양식 - 학교홈페이지, 온라인제출: [xiaoyan83@naver.com](mailto:xiaoyan83@naver.com)

다. 서류 심사 결과 발표는 12월 7일, 홈페이지 게시, 문자 전송

6. 서류 심사 기준

심사영역	심사기준	평점(100)		
체험활동 동기	체험활동을 참여하게 된 동기는 타당한가?	10	9	8
캠페인 활동의 주제	캠페인 활동의 주제는 현실적인가?	10	9	8
캠페인 활동	구체적인 캠페인 활동 실천의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10	9	8
자유 모듬 활동의 주제	자유모듬활동 주제가 인문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소비적이고 유희적인가 여부)	20	17	15
자유 모듬 활동 계획	자유 모듬 활동의 계획이 구체적인가?	20	17	15
예산 활용	예산 활용 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20	15	13
모듬원 역할	모듬원들의 역할 및 구체적 활동이 잘 나타나 있는가?	10	9	8